

2022. 1. 3.

재난예방과

일일 언론보도 현황

순 번	제 목	언론사	총계
1	여주소방서, 화재진압 유공 경찰공무원 표창	중부일보 여주신문 미디어연합 선경일보	4

여주소방서, 초기진화로 큰 불 막은 여주경 찰서 조민정 경사에게 표창장 수여

✎ 김규철 | ☎ 승인 2022.01.02 17:30



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큰 불을 막은 여주경찰서 조민정 경사에게 감사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.

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큰 불을 막은 경찰관이 소방서장의 표창을 수상했다. 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점동면 청안리 소재 한 영업장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 큰 불을 막은 여주경찰서 점동파출소 조민정 경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. 점동파출소에 근

무하는 조 경사는 지난 12월 15일 밤 10시 8분께 파출소 인근 한 영업장 주인으로부터 불이 났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급히 달려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동 진화했다. 조 경사의 침착한 선제적 대응이 큰 불을 막을수 있었던 것으로 영업장 주인과 여주소방서는 조 경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
나상수 소방서장은 "화재 초기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화재를 진화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"며 "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경찰과 소방의 의무가 같은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김규철기자



김규철 kimkc6803@joongboo.com

저작권자 © 중부일보 - 경기·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여주소방서, 화재진압 유공 경찰공무원 표창

✎ 박관우 기자 | ☎ 승인 2021.12.31 13:16



여주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지난 12월 31일 오전 서장실에서 화재진압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.

표창장의 주인공은 여주경찰서 점동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조민정 경사로 21. 12. 15. 10:08분경 근무장소 인근 영업장 관계인의 불이 난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신속하게 현장 확인 후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방지했다.

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“화재 초기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화재를 진화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며 “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의 의무는 같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박관우 기자 yeoju5@hanmail.net

여주소방서, 화재진압 유공 경찰공무원 표창

✎ 임미숙 기자 | ⓒ 승인 2021.12.31 15:38

여주경찰서 점동파출소 조민정 경사,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



[마이TV=여주] 경기 여주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31일 서장실에서 여주경찰서 점동파출소 조민정 경사에게 화재진압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.

소방서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전 10시8분께 근무장소 인근 영업장 관계인의 불이 난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신속하게 현장 확인 후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방지했다.

나성수 서장은 “화재 초기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화재를 진화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며 “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의 의무는 같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

임미숙 기자 mytv@mediayonhap.com

여주소방서, 화재진압 유공 경찰공무원 표창

2022-01-02 15:24



여주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지난 12월 31일 오전 서장실에서 화재진압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.

표창장의 주인공은 여주경찰서 점동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조민정 경사로 21. 12. 15. 10:08분경 근무장소 인근 영업장 관계인의 불이 난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신속하게 현장 확인 후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방지했다.

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“화재 초기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화재를 진화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며 “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의 의무는 같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”라고 말했다.

정기성 기자

skilbo@naver.com

